

「てほしくない」と「ないでほし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김 영 민**
erumu@daum.net

〈 目 次 〉

- | | |
|----------------------------|-------------------------|
| 1. 들어가기 | 4.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차이점 |
| 2. 선행연구 및 본고의 입장 | 4.1 조사와의 호응 관계 |
| 2.1 선행연구 | 4.2 부정의 작용역 및 초점과의 관계 |
| 2.2 본고의 입장 | 4.3 전제조건과의 관계 |
| 3.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의미와 기능 | 4.4 배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
| 3.1 「てほしくない」의 경우 | 5. 나가기 |
| 3.2 「ないでほしい」의 경우 | |

Key word : 부정(Negation), 의미(Meaning), 기능(Function), 부정적 희망(Negative Expectation), 부정적 명령(Negative Command)

1. 들어가기

현대일본어의 ‘희망’이나 ‘의뢰’를 나타내는 「てほしい」의 부정형은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라는 두 가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雨が降っているので、彼にここまで来てほしい。 (青)
b. 雨が降っているので、彼にここまで{来テホシクナイ/来ナイデホシイ}。¹⁾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캠퍼스) 일본어 통번역학과 (전)강사, 일본어학

예문(1)의 경우, 비록 표현 의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てほしい」의 부정형으로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2) a. 研究テーマは先生に選んでほしい。 (ア)
 b. 研究テーマは先生に{選ンデホシクナイ/?選バナイデホシイ}。
 (3) a. 少しは驚いてほしいよ。隠しカメラだから。 (蛇)
 b.{??驚イテホシクナイ/驚カナイデホシイ}。隠しカメラだから。

즉, 예문(2)-(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와 호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점과 「ないでほしい」를 「てほしくない」로 바꾸거나, 「てほしくない」를 「ないでほしい」로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てほしい」의 부정형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는 용법의 분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코퍼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의 분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본고의 입장

2.1 선행연구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てほしい」와 대립하는 부정형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中右(1979), 工藤(1989,2005), 森田・松木(1989), 森(1996)등의 연구와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를 독립된 부정 형식으로 인정한 牟田(2019)의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문의 경우, 인용한 예문은 ひらがな로, 작례인 경우는 카타カナ로 표기하였음.

中右(1979)는 ‘일본어에는 모달리티와 부정이 분리하기 어려운 고정표현을 나타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모달리티 부정이 아니라 명제 부정인 경우가 존재하며, 「てほしくない」의 경우도 형태상으로는 「てほしい」의 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²⁾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森田·松木(1989)는 ‘「てほしくない」는 「ないでほしい」에 비해 거부하는 기분이 강하고, 보다 명령적으로 주장할 때 사용한다³⁾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ないでほし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고찰도 찾아볼 수 없었다.

森(1996)는 ‘「ないでほしい」에는 「てほしくない」에는 인정되지 않는 <요청>이라는 발화의 힘이 존재하는 것과 「てほしくない」가 「ないでほしい」에 선행하여 생성되므로 「てほしくない」라는 기분이 있어야 「ないでほしい」라는 요청/요구가 성립된다⁴⁾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森的 주장은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의 특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과 이들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실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工藤(2005)는 ‘「てほしくない」에 대해 희망 표현을 나타내며, 希求의 서술문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형태상으로는 「てほしい」의 부정으로 표현되지만 의미적으로는 希求라는 기분의 결여보다는 「しない」의 希求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ないでほしい」는 의뢰표현으로서 의뢰, 명령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⁵⁾고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牟田(2019)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てほしくない」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 표현의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てほしくない」는 ‘否定的願望’, 「ないでほしい」는 ‘명제의 비존

2) 中右実(1979) 『モダリティと命題』 『英語と日本語と』 くろしお出版 p.242

3) 森田良行·松木正恵(1989) 『NAFL選書5 日本語表現文』株式会社アルク p.283

4) 森貞(1996) 『「…(し)てほしくない」と「…(し)ないでほしい」について一』 『言語研究』110号 日本言語学会 第112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p.213

5) 工藤浩(2005) 『文の機能と叙法性』 『国語と国文学』82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13

재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てほしくない」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려를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의 독립체로서 보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⁶⁾고 하였다. 牟田의 연구는 모달리티의 형식으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논문에 제시된 하나의 독립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의미의 창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2.2 본고의 입장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공통적인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미해석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정의 초점이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에 대한 것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에 의해 파생되는 언어 현상을 단지 「てほしい」의 부정형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독립된 언어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들 표현을 비교 분석하여 독립된 부정 형식으로서의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인용한 예문은 주로 国立国語研究所『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의 검색 어플리케이션『少納言/中納言』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그 외에도 Yahoo!知恵袋, 朝日新聞, 読売新聞 및 본고와 관련된 논문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또,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 중 カタカナ로 표기된 것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작레임을 밝혀둔다.

6) 牟田綾(2019) 「否定とモダリティ形式—モダリティ形式としての「てほしくない」に着目して—」 『一橋大学国際教育交流センター紀要』 pp.69-82

3.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의미와 기능

일반적으로 「てほしい」의 용법은 화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을 나타내는 희망 표현이나,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해 주기를 바라는 의뢰표현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てほしい」의 부정형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 또한 「てほしい」의 특성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희망과 의뢰를 나타내는 표현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부정과의 호응 관계 등이 더해지므로 「てほしい」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てほしい」의 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 이는 中右(1979)의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이하 본고에서는 희망과 의뢰표현이라는 기존의 관점과 더불어 표현 의도의 전달 방식의 차이점, 즉, 화자가 바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한 표현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표현인지의 차이점이라는 시각을 더하여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에 관한 예문을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3.1 「てほしくない」의 경우

본절에서는 「てほしくな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1 부정적 희망

- (4) a. ディズニーに行く日の天気予報みたら雨。絶対雨降ってほしくない。
晴れるようにてるてる坊主でも作るかな。 (Y)
- b. 「私だって離婚してほしくないよ。」親が決めることに子どもの私は従うしかない。 (読)
- c. お客様の個人データをさまざまなマーケティング施策に使用してほしくない場合は電子メールでその旨を当社までご連絡ください。 (Y)
- d. 「恐らく本音ではない。いや、本音であってほしくないというのが正直な感想だ。」延長12回、4時間20分の長時間ゲームを3-3の引き分けで終えた、藤本監督の言葉だ。 (朝)

예문(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a의 경우는 모처럼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한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서 절대로 비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고, b. 또한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화자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c.와 d.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즉, c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d는 ‘본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4)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의미의 특성은 화자의 기분이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부정적 희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てほしくない」의 의미와 기능 중에는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부정적 희망’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てほしくない」의 기능 중에는 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화자의 의도를 전하기 원하며, 화자가 원하는 것을 실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절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2 거절/거부

- (5) a. 今度の研究テーマは先輩に選んでほしくない。 (電)
 b. 私が何をすべきか、君に言ってほしくない。 (凍)
 c.いくら満足しているとしても、このまずっと貧しいままでいてほしくない。 (Y)
 d. 白樺派?あんまり概念的にそんな言葉をつかってほしくないな。白樺派の文学者といわれている人たちも、それぞれ違った面があるんだぜ。 (青)

위의 예문(5)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a는 ‘연구 테마를 당사자가 아닌 선배가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b. 또한 ‘내가 뭘 할지에 대해 네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한 거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c.와 d.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채로 지내는 것을 거부한다’, ‘그 단어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화자의 표현 의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てほしくない」에는 앞의 예문(4)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거절/거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아래의 예문(6)의 (a)와 (b)는 동일하게 「かまってほしくない」가 사용되었지만, (a)는 단순한 ‘부정적 희망’, (b)는 ‘거절/거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猫は気分屋だから、かまってほしくない(a)時もあるのです。猫のかまってほしくない(b)時に見せる仕草を紹介します。 (Y)

3.1.3 권유

- (7) a. 「一生に一度の小学校の卒業式を悲しい思い出にしてほしくない。皆さんにこの鶴谷小学校で学んだことを誇りに思ってもらいたい」 (T)
- b. あなたの体が心配だから、あまりたばこは吸ってほしくない。 (Y)

위의 예문(7)은 앞에서 살펴본 예문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a는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한 宮城県仙台市の 鶴谷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일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을 슬픈 추억으로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러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격려와 권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b.의 경우 또한 ‘건강이 걱정되니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권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てほしくない」에는 ‘권유 표현’으로써의 기능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4 부정적 명령

- (8) a. 千寿子は僕が二度と他の女性に会ってほしくないと言った。 (道)
- b. 人間の勝手な考えで誤った飼い方をしてほしくないです！ (Y)
- c. 「大丈夫よ!」ルミは気丈に押し戻して、「知ってて私に隠してたのね? 一同情なんかしてほしくないわ!」と叫ぶように言った。 (華)
- d. 「母の作品はこれ以上なくしてほしくない。気をつけてほしい」 (コ)

위의 예문(8)에서 사용한 「てほしくな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a.는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기 바란다’, b.는 ‘인간이 멋대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육법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c.는 ‘괜찮으니까 동정 따위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d.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작품을 읽고 싶지 않으니 조심해 주기 바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표면적으로는 당부의 말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는 부정적 감정이나 경고가 내포된 명령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 것’, b. ‘잘못된 사육법은 그만둘 것’, c. ‘동정 따위 하지 말 것’, d.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부정적 명령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문(8)의 분석은 ‘거부하는 기분이 강하고, 보다 명령적으로 주장할 때 사용한다’는 森田・松木(1989)의 설명을 실례(実例)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고찰이라 하겠다. 다음절에서는 「ないでほし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 「ないでほしい」의 경우

본절에서는 「ないでほし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1 부정적 희망

- (9) a. 明日は運動会だから、雨が降らないでほしい。
 b. 悲しい事故は二度と起きないでほしい」と言った。 (朝)
 c. 私の国のサッカーチームが負けるかもしれません。
 頑張って、負けないでほしいです。 (朝)
 d. 先生には僕たちが卒業しても忘れないでほしいです。 (Y)

우선 위의 예문(9)의 내용을 살펴보면, a.의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b.의 ‘슬픈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c.의 ‘축구 시합에서 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d.의 ‘선생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원하다’는 화자가 바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9)의

7) 주3)의 전제서, p.283

경우 또한 a.와 b.처럼 청자가 특정화되지 않거나, 청자나 동작주에게 요청을 나타내기보다는 화자의 희망을 표출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てほしくない」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高梨(2020)는 부정적 희망을 나타내는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에 대해 「てほしくない」는 화자의 원하는 바를 비교적 소극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인 것에 반해, 「ないでほしい」는 화자의 바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⁸⁾고 언급하였다. 결국, 高梨(2020)가 언급한 이 둘의 차이점은 「ほしい」가 부정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하는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하는 「てほしくない」가 그렇지 않은 「ないでほしい」보다 ‘부정 표현으로서의 완곡성’⁹⁾을 나타내므로 「てほしくない」가 비교적 소극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는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면서도 서로 다른 뉘앙스를 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배려

어떤 사태나 행위가 수행되지 않거나, 중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배려 표현이라 한다. 아래의 예문에 사용된 「ないでほしい」는 배려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0) a.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遠慮しないでほしい。 (Y)
 b. 驚かないでほしい。実は、企画PR課というのは表面だけで、君にスパイをやってもらいたいんだ。 (会)
 c. 入院の可能性をにおわず個所はどこにもなかった。逆に、おかげで体調は回復したので、心配しないでほしい、という意味のことが書いてあった。 (凍)

예문(10)의 예문이 지니고 있는 표현 의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8) 高梨信乃(2020) 「「てほしい」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か」『関西大学外国語部紀要』 23 pp.55-56

9) 森田良行(1995) 「否定の効果」『日本語の視点』創拓社 p.225

즉, a는 조금도 패념치 말고 마음껏 드시라는 화자의 넉넉한 마음을 전하고, b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놀라지 말라고 부탁을 하며, c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청자나 동작주에게 무언가 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베풀거나 제공하고자 한다는 언어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ないでほし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2.3 화자의 주장

- (11) a. 「私の目の届かないところには行かないでほしいってことよ。
分らないの?」ステファニーはニッキーに向かって言った。 (E)
- b. この事件だけをとらえて、今の中学生は云々と言わないでほしい。
とにかく信頼してよ。 (最)
- c. 分かりませんか?あの声はもったいないから引退しないでほしい
という意味です。 (Y)

위에 제시된 예문(11)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a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에는 가지 말아달라’는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나타내고, b는 ‘하나의 사건으로 요즘의 중학생 운운하지 말고 믿어달라’는 주장, c는 ‘은퇴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를 말하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표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ないでほしい」는 화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강하게 주장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부정적 명령

- (12) a. 明日から会社に来ないで欲しい。 (Y)
- b. いくら恋人でも、勝手にスマホを見ないでほしい。 (Y)
- c. 山田が真面目な顔をして忍の松前を見た。「ん?」「いいか、人前で決して変なことを言わないでほしいんだ。いや、もう黙っていてほしい。(恋)

위의 (12)의 예문에서 「ないでほし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상으로는 a.의 경우 ‘회사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b.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기 바란다’, c.는 ‘이상한 말 하지 않기 바란다’, ‘아무말도 하지 않기 바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12)의 내면에는 형태상의 해석보다 훨씬 강한 부정적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12)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a.의 경우 ‘회사에 오지 말라’, b.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 c.는 ‘이상한 말 하지 말라’,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 화자의 거부하는 기분이나 명령적으로 주장하는 의미가 내포된 강력한 부정적 명령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森田・松木(1989)는 이와 같이 ‘거부하는 기분이 강하거나, 명령적으로 주장하고자’ 할 때 「ないでほしい」보다는 「てほしくない」가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ないでほしい」에서도 거부하는 기분과 명령적 주장이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장에서는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희망 및 부정적 명령’은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에 모두 볼 수 있고, ‘거절/거부, 권유’는 「てほしくない」에서, ‘배려, 화자의 주장’ 등은 「ないでほし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차이점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4.1 조사와의 호응 관계

우선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와 조사와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 (13) a. あなた{に/*が}見てほしくない。
 b. 彼{に/*が}来てほしくない。
 (14) 雨{が/*に}降らないでほしい。

우선 예문(13)-(14)와 같이 격조사를 수반할 경우,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13)과 같이 「てほしくない」는 「に」와 호응하지만, 「が」와는 호응하지 않는 것에 반해, (14)에서는 「ないでほしい」는 반대로 「に」와는 호응하지 않고, 「が」와 호응 관계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문처럼 독립 조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 (15) a. 本当にやめてほしくはない。
 b. 勘違いしてほしくもない。
 (16) a.* 本当に辞めないではほしい。
 b.* 勘違いしないでもほしい。

「てほしくない」의 경우 예문(15)처럼 「は, も」 등의 조사가 부가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예문(16)의 「ないでほしい」의 경우는 조사의 부가를 허용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만다. 이처럼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는 조사와의 호응 관계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인다.

4.2 부정의 작용역 및 초점과의 관계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부정의 작용역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즉, 「てほしくない」는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하지만, 「ないでほしい」는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의 초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해석에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てほしくない」는 의미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ないでほしい」는 그러한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 a. そんな下品な言葉は使ってほしくない。 (失)
 b. あいつはお礼を言わない。別に言ってほしくもないが。 (も)

부정문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부정의 작용역과 초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17)의 a와 b는 모두 「てほしくない」를 수반하고 있어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문 (17)의 의미는 결국 부정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a와 b의 부정의 초점은 각각 a는 ‘下品な言葉’, b는 ‘言う’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경우 ‘저속한 말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 b는 ‘특별히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17)과 관련하여 牟田(2019)는 「てほしくない」는 부정적 희망을 나타내는 <やめてほしい>로 치환할 수 있다¹⁰⁾고 하였다. 그러나 「てほしくない」를 「やめてほしい」로 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보인다.

- (18) a. 下品な言葉を使うのをやめてほしい。
 b. お礼を言うのをやめてほしい。

즉, (17)a와 (18)a는 모두 ‘저속한 말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17)b와 (18)b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17)b는 ‘특별히 감사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에 반해 (18)b는 ‘감사의 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라는 의미가 되어 화자의 표현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 따라서 牟田(2019)는 부정문의 의미변화에 부정의 초점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てほしくない」와 「やめてほしい」의 치환 여부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해석을 유도하는 현상은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하는 「てほしくない」에서는 볼 수 있지만, 「ほしい」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 「ないでほし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3 전제조건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긍정 표현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10) 주6)의 전제서, p.72

부정 표현은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昨日、新宿には行かなかつたよ」라는 부정문을 무리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話者が)昨日、新宿に行く」라는 사실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듯이 「てほしくない」도 이와 동일한 조건이 요구된다.

- (19) ガソリンスタンドにも、めし屋にも寄らなくていいよ。(略)だから車は
 {停めてほしくない/停めないでほしい}ね。 (あ)

예문(19)는 ‘자동차를 멈추지 말라’는 화자의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앞서 ‘그 어디에도 들르지 말라’는 당부, 즉 전제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停めてほしくない/停めないでほしい」가 모두 사용되지만, 아래의 예문처럼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20) a.?? 私とお母さんのこと、人に話してホシクナイ。人にあまり知られたくないから。 ((21)a.의 예문 참조)
 b.* 驚いてホシクナイ。実は、企画PR課というのは表面だけで、君にスパイをやってもらいたいんだ。 ((10)b.의 예문 참조)

위의 예문(20)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てほしくない」를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없이 사용할 경우, 무례함이나 당돌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화자의 표현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ないでほしい」는 아래의 예문(2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 (21) a. 私とお母さんのこと、人に話さないでほしい。人にあまり知られたくないから。 (象)
 b. 驚かないでほしい。実は、企画PR課というのは表面だけで、君にスパイをやってもらいたいんだ。 (=10)b.)

이상, 전제조건과의 호응 관계를 통한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4.4 배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사태나 행위를 수행하지 않거나 중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나타내거나 청자에게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배려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ないでほしい」가 자연스러운 것에 반해 「てほしくない」는 다음과 같이 배려의 의미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a.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遠慮{??シテホシクナイ/しないでほしい}。
(道)
- b. 入院の可能性をおわず個室はどこにもなかった。逆に、おかげで体調は回復したので心配{??シテホシクナイ/しないでほしい}、という意味のことが書いてあった。
(凍)
- c. あまり気に{??シテホシクナイ/しないでほしい}。生活費ぐらいは稼ぐからね。
(Y)

이상과 같이 배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ないでほしい」는 자연스럽게 호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てほしくない」는 호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나가기

본고에서는 ‘희망과 의뢰’를 나타내는 「てほしい」의 두 가지 부정형식인 「てほしくない」와 「ないでほし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てほしくない」는 주로 ‘부정적 희망, 거절/거부, 권유, 명령’ 등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며,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둘째, 「ないでほしい」는 ‘부정적 희망’을 비롯해 ‘배려, 화자의 주장, 부정적 명령’ 등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과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てほしくないないでほしい」의 차이점으로는 ①조사와의 호응 관계, ②부정의 작용역 및 초점과의 관계, ③전제조건의 유무, ④의미와 기능의 측면에서도 ‘배려, 요청’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てほしくない」를 중심으로 한 모달리티의 부정과 「ないでほしい」를 중심으로 하는 명제 부정 간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과 「てほしくなかったないでほしかった」 등의 과거형을 중심으로 한 시제 간의 차이점 등에 관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용례 출전>

(T): TBS NEWS(Dig, 2023.3.22.), (凍): 凍れる瞳, (華): 華麗なる探偵たち, (告): 告白ハンバシちゃってごめん, (真): 真夜中のヒーロー, (E): Eメールは眠らない, (最): 最相葉月のさいとび, (恋): 恋のアリバイをくずせ!, (青): 青春の門, (ア): アメリカへ行った僚子, (蛇): 蛇にピアス, (会): 会社を読む, (あ): あなたをつくります, (コ): コバルト, (道): 道ありき, (も): もっとも大切なこと, (電): 電腦天使, (読): 読売新聞, (失): 失われた時を求めて, (象): 象のダンス

<参考文献>

- 工藤浩(1989) 『現代日本語の叙法性序章』 『東京外国語大学論集』39 東京外国語大学 pp.13-33
- _____(2005) 『文の機能と叙法性』 『国語と国文学』82(8)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p.1-15
- 工藤真由美(1979) 『依頼表現の発達』 『国語と国文学』56(1)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p.46-64
- _____(2000) 『否定の表現』 『日本語の表現2 時・否定と取り立て』 岩波書店 pp.93-150
- 高梨信乃(2020) 『「てほしい」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か』 『関西大学外国語部紀要』23 pp.43-58
- 中右実(1979) 『モダリティと命題』 『英語と日本語と』 くろしお出版 pp.223-250
- 三井はるみ(2007) 『要求表現形式「~てほしい」の共通語としての定着』 『日本語学』26

(11) 明治書院 pp.102-110

牟田綾(2019) 「否定とモダリティ形式—モダリティ形式としての『てほしくない』に着目して—」 『一橋大学国際教育交流センター紀要』 pp.69-82

森貞(1996) 「『…(し)てほしくない』と『…(し)ないでほしい』について—」 『言語研究』 110号 日本言語学会 第112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p.213

森田良行(1995) 「否定の効果」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p.223-241

森田良行・松木正恵(1989) 『NAFL選書5日本語表現文』 株式会社アルク pp.282-283

山西正子(2011) 「『～てほしい』と格助詞」 『目白大学人文学研究』7 pp.165-174

米澤昌子(2015) 「『てほしい』と『てもらいたい』の使用について—新聞における用例からの一考察—」 19 同志社大学大学院日本語学研究会 pp.46-58

접수일: 2023년 7월 7일

심사완료: 2023년 7월 26일

게재결정: 2023년 7월 27일

<Abstract>

A Study on Meaning and Function of ‘tehosikunai’ and ‘naidehosii’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over meaning and function of ‘tehosikunai’ and ‘naidehosii’ that two negative forms of ‘tehosii’ aiming to describe expectation and request.

‘Tehosikunai’ is mainly used in describing negative expectation, refusal, suggest, or order. This form cannot be used unless preconditions are satisfied.

Otherwise, ‘naidehosii’ can be when preconditions are not met and includes meaning of negative expectations, consideration, one’s opinion and negative imperative.

The differences between ‘tehosikunai’ and ‘naidehosii’ are also discovered. These two negative forms has clear distinctions in 1) correlation with postpositions, 2)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and focus of negation, 3) existence of preconditions, and 4) meaning and function.

In extended study in future, the past tense and its usage of ‘tehosikunakatta/naidehosikatta’ would be discovered.